

《東坡易傳》에 나타난 蘇軾의 情感論적 윤리설*

— 정주이학의 윤리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차 영 익**

<목 차>

1. 서론
2. 《東坡易傳》의 특징
3. 情·性·命의 합일
4. 情을 근본으로 하는 윤리설
5. 善을 향한 人情의 실천
6.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소식의 윤리적 특징을 소식의 《동파역전》을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정주이학자들은 천리로부터 비롯되는 선을 윤리실천의 근거로 삼았던데 반해 사람의 자연스런 욕구를 부정했다. 이에 반해 소식은 사람들의 자연스런 본능과 욕구를 긍정하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본성을 명(命)의 경지까지 미루어간다. 이렇게 정감을 긍정하는 윤리관은 어떤 체계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소식은 북송시대의 대표적 문인이며, 정치가, 서예가, 화가이다. 특히 그의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7S1A5B5A01025995).

**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박사후과정

문학작품은 詩 2,700여 수, 詞 300여 수, 散文 4천800여 편이 남아있어 양과 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따라서 소식에 대한 연구도 문학방면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황종희(黃宗羲)의 《송원학안(宋元學案)》에서는 소식을 포함한 부친 소순과 동생 소철의 경학을 촉학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도 소식의 경학저술에 대해 높은 평을 하고 있다. 소식은 《주역》, 《서경》, 《논어》에 대한 주석서를 남겼는데, 특히 그의 《주역》 해석서인 《동파역전》에는 문학, 철학, 사학을 아우르는 일관된 사상체계가 녹아 있기 때문에 그의 학문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동파역전》은 대략 소식이 황주로 폄적된 1080년(원풍 3년)에 완성된다. 조정에서 신당과 구당의 격렬한 당쟁 속에서 희생된 소식이 앞날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유언(遺言)적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파역전》은 소식의 조정에서의 정치철학, 지방관에서의 정사의 경험 및 개인의 인생경험이 복합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주이학자들이 선험적 리(理)를 중심으로 윤리설을 전개하는데 반해, 소식은 경험적 정을 근본으로 윤리적 특징을 확립한다. 정주이학이 선험적이고 초월적인 천리와 본성을 윤리적 실천의 근거로 삼아 전제왕권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면, 소식의 정감론적 윤리설은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정(정감)을 인생의 최종 실재나 근본으로 삼아 윤리적 이론을 전개해간다. 정주이학은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선험적 선한 본성으로 인간의 윤리적 특징을 규명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적 실천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성선설은 체계적이지만, 사회적으로 규정된 본성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정감이나 개성을 속박하는 측면도 부작용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소식은 도가학파의 본성론에 영향을 받아 인간의 자연정감을 근본으로 삼고 윤리적 입장을 전개한다.¹⁾ 이는 북송오자를 거치며 성리학이 발전하는 사상사적 흐름에 있어 정감을 윤리의 한축으로 전개해 가는 사상사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1) 范立舟, <《東坡易傳》與蘇軾的哲學思想>(《社會科學輯刊》 184期, 2009). 余敦康, <中國: 現代性與傳統論叢 內聖外王的貫通 — 北宋易學的現代闡釋>(上海: 學林出版社, 1997) 4장 <蘇軾的東坡易傳> 90-97쪽 참조.

이런 흐름은 이후 중국의 정감론적 윤리나 경학사상, 문학,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소식의 윤리적 사유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동파역전》을 중심으로 2장에서 《동파역전》의 성립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동파역전》의 전체적 특징이며 《주역》 해석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정(情), 성(性), 명(命) 합일의 사상적 특징을 조명해본다. 이어서 4장에서는 당시 정주이학자들과 다른 인성론적 특징을 부여하는 정감 본위의 윤리설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런 정감론적 윤리설이 가지는 특징과 의의를 정주이학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東坡易傳》의 특징

일반적으로 소식을 중국문학사에서 북송의 중요한 문인으로 평가하지만, 당시 소식은 신학(新學)이나 낙학(洛學)과 대립했던 촉학(蜀學)의 수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송원 유학의 특징에 대해 규명한 전조망(全祖望)의 《송원학안(宋元學案)》에서는 소식 삼부자의 학문을 “소씨촉학략(蘇氏蜀學略)”으로 두어 하나의 학파로 보고 있으며, 소식의 학문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²⁾ 또 소식의 경학가로서의 특징은 소식 자신이나 그의 문인들이 한 평가에도 드러난다. 소식은 인생 말엽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지난 모든 일이 마치 어제일 같지만 《주역》, 《서경》, 《논어》 세 책을 어
무만져 보면 이 삶이 헛되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다.³⁾

2) (清) 黃宗羲 原著 全祖望 補修, 《宋元學案》 제4책, 陳金生 梁運華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6. 3285-3295쪽 참조.

3) 이 서신은 원봉3년(1080)에 지어진다. 《蘇軾文集》 권57, <答蘇伯固書>, “某凡百如昨,

소씨의 가장 뛰어난 점은 도가 성명의 자득의 경지에서 가장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뛰어난 점은, 그릇이 중임을 맡을 수 있고 견식이 먼 곳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론과 문장, 세상과 주선한 것이 가장 떨어집니다. 각 하께서 소씨를 논하면서 그 말이 문장에만 그치니 마음은 소씨를 높이려고 하지만, 마침 그를 욱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⁴⁾

위의 인용문은 소식이 만년에 지인인 소백고(蘇伯固)에게 쓴 서신으로 평생 자신의 업적을 돌아보며 평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소식이 《주역》을 제일 앞에 언급하며 이 책에 주석을 단 것을 제일 높이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소식의 네 명의 문인 중 한 사람인 진관(秦觀)이 소식에 대해 평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식 당시에 소식의 의론이나 문재(文才)가 제일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소식이 제일 뛰어났던 부분은 본성과 명에 관한 그의 학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성명의 자득'이란 각기 다른 개체가 자신의 본성(性)에 만족하며 최대한의 자유로운 삶(命)을 사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소식의 윤리적 특징도 이 '성명의 자득'과 관련된 것이다.

《동파역전》은 소식이 황주로 폄적된 해인 원풍3년(1080년)에 지어지고, 이후 경주(瓊州: 해남도) 폄적시기(1097~1100)에 완성되기까지 계속 수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원풍3년(1080) 초고가 만들어진 이후 20년 정도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된 서적이다.⁵⁾

선군께서 만년에 《역전》을 짓다가 완성하지 못한 채로 병이 위독해졌다. 그래서 공에게 명해 그 뜻을 이어가도록 했다. 공은 울며 부친의 명을 받고는 마침내 그 책을 완성했다. 그런 다음에 친년의 깊은 뜻을 환히 알 수 있었다. 다시

但撫視《易》、《書》、《論語》三書，卽覺此生不虛過。”

- 4) 《淮海集》 권3, <答傅彬老簡>, “蘇氏之道，最深於性命自得之際，其次則器足以任重，識足以致遠，至於議論文章，乃其與世周旋，至粗者也。閣下論蘇氏而其說止於文章，意欲尊蘇氏，適卑之爾!”
- 5) 謝建忠의 <蘇軾《東坡易傳》考論>(《文學遺產》 2000年06期)과 金生楊의 <也論《東坡易傳》的作者和繫年>(《文學遺產》 2003年01期)에서 《동파역전》의 성립을 소식이 황주시기 온 이후 1년 안에 지어졌다고 보고 있다. 두 논문은 《동파역전》을 부친 소순(蘇洵) 주역사상의 계승인지, 소식의 관점과 경험으로 새로 거듭난 저술인지의 차이를 두고 있다.

《논어설》을 지어 불현 듯 공자의 심오한 도리를 드러내었고, 마지막으로 해남에 거처하면서 《서전》을 지어 상고시대의 전해지지 않은 학설을 미루어 밝혔는데 이전 유자들이 깨닫지 못한 내용이 많았다. 세 책을 완성한 후에 어루만지며 탄식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지만, 후대에 군자가 있어 나를 분명 알 것이다”⁶⁾

소식의 부친 소순이 생전에 《역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아들 소식에게 완성시키라는 유명을 남긴 것으로 보아 소순이 본래 《주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역전》을 완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고전서총목제요》에 의하면 동생 소철도 《주역》 <몽(蒙)>괘 해석을 소식에게 보내어 삼부자가 협력해서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황주시기에 《동파역전》이 지어진 이후 그가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계속해서 수정된 것으로 보아 소순과 소철의 역할은 참고할 정도이며 주로 소식이 그의 학문과 경험을 이 책에 투영하여 지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여기에 소식이 오대시안(烏臺詩案)⁷⁾이라는 필화사건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상황에서 부친의 유언을 실천한다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동파역전》은 개인의 경험과 학문적인 통찰이 결합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동파역전》의 특징을 가장 특징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는 《사고전서총목제요》(이하 총목제요로 간칭)의 설명이 있다. 이 제요를 중심으로 《동파역전》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소식 역학의 특징은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을 근거로 한다는 점이다.

지금 이 책을 살펴보니, <건괘> 단전의 성명의 이치를 설명한 것과 여러 조목들은 참으로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함을 면치 못하여 이학에 빠졌다. 하지만 나

6) 《欒城集》, <亡兄子瞻端明墓誌銘>, “先君晚歲作《易傳》, 未完, 疾革, 命公述其志, 公泣受命, 卒以成書, 然後千載之微言, 煥然可知也. 復作《論語說》, 時發孔氏之秘. 最後居海南, 作《書傳》, 推明上古之絕學, 多先儒所未達. 既成三書, 撫之歎曰‘今世要未能信, 後有君子當知我矣.’”

7) 신종 원풍(元丰) 2년(1079)에 소식의 시문을 구실로 삼아 발생한 필화사건. 북송시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계기로 혁신을 추구하는 변법파와 보수파의 당쟁이 심했다. 이에 보수파인 소식의 시문을 구실로 삼아 보수파를 박해한 사건. 오대(烏臺)는 죄인을 심문하는 어사대(御史臺)를 말한다.

머지 천지자연의 이치를 미루어 밝힌 부분은 말은 간단하지만 뜻은 분명하여 드러내기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니, 꼭절히 비유하는 뜻을 깊이 얻었다. 대체로 큰 틀은 왕필에 가깝지만, 왕필은 오직 현학의 학풍만을 진술하였고 소식의 주장은 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문장은 널리 분별하여 변론하였기 때문에 계발의 자료로 삼기에 충분하니, 어찌 일괄적으로 배척할 수 있겠는가?8)

《총목제요》에서는 본성과 명에 관한 소식의 해석이 애매모호하여 유가 이외의 학술로 규정하지만 천지자연의 이치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현학 즉, 노장사상만을 진술한 왕필과 달리 《동파역전》은 인사(人事)와 매우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위의 평가에서 왕필을 추상적인 도를 설파한 노장의 입장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소식의 전체적인 학풍과 맞지 않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소식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정리했다고 할 수 있다. 당나라의 이정조(李鼎祚)는 왕필의 역학을 한나라 정현과 비교하여 “정현은 천상(天象)을 깊이 참고하였고 왕필은 인사를 온전히 해석하였다”9)고 하여 왕필의 역학을 인사에 치중했다고 본다. 사실 왕필의 의리역학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천도의 해석을 인사의 해석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리역의 전통은 송 초기 이구(李觀)나 구양수(歐陽脩)를 비롯한 역학자들이 그대로 계승하였으므로, 소식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를 중시하는 《동파역전》의 특징은 왕필이 그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소식이 천지자연의 이치(理勢)10)를 미루어 밝힌다고 하여 자연주의(自然主義)의 역학적 경향을 띠면서도 인사를 중시하는 유가적

8) 紀昀, 《四庫全書總目提要》《東坡易傳》提要, “今觀其書, 如解乾卦<彖傳>性命之理諸條, 誠不免杳冥恍惚, 淪爲異學, 至其它推闡理勢, 言簡意明, 往往足以達難顯之情, 而深得曲譬之旨. 蓋大體近於王弼之說, 惟暢玄風. 軾之說, 多切人事, 其文辭博辨, 足資啓發, 又烏可一概屏斥耶?”

9) “鄭則多參天象, 王乃全釋人事.” 이정조의 원문은 李道平의 《周易集解纂疏》(北京: 中華書局, 1994년)의 5쪽 ‘周易集解原序’에서 인용함.

10) ‘이세(理勢)’의 개념은 소식의 학문체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개별자들의 끊임 없는 변화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추이에 불과하며, 인간의 생사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호오의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관상의 ‘유’와 ‘변화’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종성의 <郭象의 ‘獨化論’에 관한 考察>(《大同哲學》 제3집, 1999) 287-288쪽 참조, 《蘇軾評傳》 284-300쪽 참조.

특징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소식의 역학경향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북송 대 역학이 유가적 인문주의로 흐르는 상황에서 도가의 자연주의적 특징에 방점을 찍고 천도와 인도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소식의 역학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¹¹⁾

하지만 소식은 정시(正始)연간 노자를 추종하던 시대적 분위기에서 《주역》을 해석하는 왕필의 이로해역(以老解易)의 관점과는 달리 장자적 입장에서 《주역》을 해석하는 이장해역(以莊解易)의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¹²⁾

사물은 그 이유가 없는 것이 없고 반드시 그 이치로 말미암는다. 통할하는데 중심이 있고 회통하는데 근원이 있기 때문에 번거로워도 어지럽지 않고 많아도 의혹되지 않는다.¹³⁾

괘는 때이고, 효는 그 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¹⁴⁾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중심된 뜻(理)이 육효를 관통하면서 괘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중심된 뜻을 괘의(卦意) 혹은 시의(時意), 시(時)라고 하며, 시(時)에는 반드시 작용이 있기 마련이므로 64괘는 64가지의 각기 다른 작용을 상징한다. 왕필은 이런 사상에 근거하여 괘를 시(時)로 삼고 효를 사람

11) 이것을 여돈강은 '내성외왕의 관통'이라는 표현으로 소식 역학을 정리했다. 유가를 인문주의, 도가를 자연주의로 단정한 것은 양가의 특징을 단순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유가를 실용적 유희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간다는 측면에서, 도가를 우주와 천지의 형이상학적 근원을 밝힌다는 측면에서 각각 인문주의와 자연주의를 설정하고 논지를 전개한다. 余敦康, 《中國：現代性與傳統》論叢 內聖外王的貫通 — 北宋易學的現代闡釋》(上海：學林出版社, 1997) 4장 <蘇軾의東坡易傳> 69-77쪽 참조.

12) 장자로 주역을 해석한다(以莊解易)는 것은 광상의 장자해석에 기초한다. 광상은 개체 사물 내부의 자연 본성을 벗어나 따로 조물주의 존재나 지위를 세우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적 사물은 완벽하며(獨化) 이 개체의 양적인 총합을 우주로 본다. 소식은 이런 생각을 괘와 효의 관계에 적용하여 개별자를 효와 정에, 우주를 괘와 성에 대비시킨다. 여돈강은 또 《中國：現代性與傳統》論叢 內聖外王的貫通 — 北宋易學的現代闡釋》(107-110쪽)에서 사회집단의 정치적 행위로서 노자의 남면지술(南面之術)을 경세지학(經世之學)에 연결시키고, 개인의 안신입명(安身立命)으로써 장자의 소요유(逍遙遊)를 심성지학(心性之學)에 연결시킨다.

13) 《周易略例》, <明象>, “物無妄然, 必由其理. 統之有宗, 會之有元, 故繁而不亂, 衆而不惑.”

14) 《周易略例》, <明爻通變>, “夫卦者, 時也; 爻者, 適時之變者也.”

(人)으로 삼았다. 곧, 객관형세를 의미하는 시(時)에 맞게 사람(人)이 주체적으로 행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왕필의 패효에 대한 해석의 배후에는 때에 맞는 쓰임이라는 주장을 통해 위나라 조씨(曹氏) 정시(正始)연간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¹⁵⁾ 결국 이러한 의도는 현학의 형식을 빌린 경세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소식은 인사에 절실하게 부합한다는 왕필의 역학특징을 계승하는 한편, 이를 더욱 발전시켜 “패를 본성(性)으로 삼고 효를 정감(情)으로 삼는다”¹⁶⁾는 견해를 제기한다. 이는 현실적 인사작용을 강조하는 왕필 역학을 본성과 자연정감, 곧 성정(性情)이라는 측면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경세지학에서 성명지학으로의 시대적 전환과 소식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 情·性·命의 합일

소식은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를 중시했으며 이 자연적인 욕구를 사람의 본성으로 보았다. 소식의 이런 논리는 맹자 비판을 통해 드러난다.

맹자는 말했다. “입이 좋은 맛에 대해, 눈이 좋은 색에 대해, 귀가 좋은 소리에 대해, 코가 좋은 냄새에 대해, 손발이 편안함에 대한 기호는 모두 본성이다. 하지만 이런 것을 얻는 여부는 명에 속한다. 그래서 군자는 필연적인 본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인이 부자지간에 있어, 의가 군신지간에 있어, 예가 빈주지간에 있어, 지혜가 현자에 대해 성인이 천도에 대해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에 속한다. 하지만 필연적인 본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군자는 그것들을 명에 속한다고 여기지 않는다.”¹⁷⁾

15) 余敦康, 《中國: 現代性與傳統》論叢 內聖外王的貫通 — 北宋易學的現代闡釋》(上海: 學林出版社, 1997) 4장 <蘇軾의東坡易傳> 102-110쪽 참고.

16) 龍吟 注評, 《東坡易傳》(長春: 吉林文化出版社, 2002), “卦以言其性, 爻以言其情.” 6쪽 참고.

17) 《孟子·盡心下》, “孟子曰, ‘口之於味也, 目之於色也, 耳之於聲也, 鼻之於臭也, 四肢之於安

맹자는 공자를 이어 본성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켜 성선론(性善論)을 주장했다. 맹자는 본성이 자연적인 욕구임을 인정하면서도 도덕적인 측면(命)을 취해야 하고, 명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제약이지만 자연적 욕구로써 자발적인 측면(性)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논리적 치환을 통해 사람의 본질을 도덕적인 인의예지로 규정하고, 본성을 선한 것으로 규정했다. 맹자의 이 말에 대해 소식은 맹자가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빚어진 것이라 보았다

예전에는 맹자가 본성을 선한 것으로 여긴 데 대해 지극한 말이라고 여겼지만, 《주역》을 읽은 뒤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맹자는 본성에 있어서는 대개 그 이어진 것을 보았을 뿐이다. 선은 본성의 작용이다. 맹자는 미처 본성을 보지 못하고, 본성의 작용만을 보고는 본 것을 본성이라고 여겼다. 본성과 선의 관계는 불이 물건을 익힐 수 있는 것과 같다. 내가 아직 불을 본 적이 없으면서 천하에 익혀진 물건을 가리켜서 불로 여긴다면 옳겠는가? 익혀진 물건은 곧 불의 작용이다. 본성과 도의 구분을 감히 묻는다면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비슷한 것은 말할 수 있으니, 도와 비슷한 것은 소리이고 본성과 비슷한 것은 듣는 행위이다. 소리가 있는 뒤에 듣는 행위가 있는가? 듣는 행위가 있는 뒤에 소리가 있는가? 이 두 가지는 과연 하나인가? 두 가지인가? 공자가 말했다.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또 말했다. “(역의 도를) 신령하게 밝히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 본성이란 사람이 되는 원인이고, 이것이 아니면 도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¹⁸⁾

원래 선은 도덕관념으로써 형식화되기 쉬운 경향이 있는데, 본성을 선이라고 규정한다면 정치적 이념에 매몰되기 쉽다. 소식이 보기에 선은 본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지 본성 그 자체는 아니다. 또 본성과 선의 관계가 ‘불(火)’과 ‘불이 사물을 익히는 것(熟)’의 관계와 같다고 보았다. 불은 음식물을 익힐 수

佚也, 性也, 有命焉, 君子不謂性也, 仁之於父子也, 義之於君臣也, 禮之於賓主也, 智之於賢者也, 聖人之於天道也, 命也, 有性焉, 君子不謂命也.”

18) 《東坡易傳》 권7, <繫辭傳>, “昔者孟子以善爲性以爲至矣, 讀易而後知其非也. 孟子之於性, 蓋見其繼者而已. 夫善, 性之效也. 孟子不及見性而見夫性之效, 因以所見者爲性. 性之於善, 猶火之能熟物也. 吾未嘗見火而, 指天下之熟物以爲火可乎. 夫熟物則火之效也. 敢問性與道之辨, 曰難言也. 可言其似, 道之似則聲也, 性之似則聞也. 有聲而後有聞邪. 有聞而後有聲邪. 是二者果一乎, 果二乎. 孔子曰. 人能弘道, 非道弘人. 又曰. 神而明之, 存乎其人. 性者其所以爲人者也, 非是無以成道矣.”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익힘’을 곧바로 불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본성의 작용이 선할 수는 있지만, ‘선’ 그 자체를 본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맹자의 논리를 따라 본성의 작용이 선하다고 한다면, 거꾸로 본성의 작용이 악하다고 할 수도 있고, 본성의 작용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소식은 본성을 선이나 악과 일치시키는 것은 불과 익힘의 관계와 같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본성은 선하다’고 한 것은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며, 이런 오해는 본성 자체를 보지 못하고 ‘이은 것(繼)’만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¹⁹⁾ 소식의 이런 이해는 본성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곧 본성과 윤리적 가치 사이의 연관성을 차단하고 본성은 선하고 정감은 악하다는 편견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소식은 이어서 본성을 떠나서는 도를 알 수 없다고 한다. 도는 소리(聲)와 같고 본성은 듣는 행위(聞)와 같아서 둘은 선후가 되거나 서로 다른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본성은 사람의 자연스런 욕구로부터 출발해서 자신이 넓혀나가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약속된 선이 사람을 규정하고 넓혀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사람의 능동성을 강조하면서 성선론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이어서 소식은 본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정감²⁰⁾을 본성과 명의 차원으로 격상시켜 해석한다.

군자가 날마다 그의 선을 닦아서 불선을 없애나가는데 불선이 날로 없어지지만 없앨 수 없는 불선이 있다. 소인이 날마다 그의 불선을 쌓아서 선을 없애나가는데 선이 날마다 없어지지만 역시 없앨 수 없는 선이 있다. 없앨 수 없는 선과 불선은 요, 순이라도 더해줄 수 없고, 길, 주라도 없앨 수 없다. 이것이 어찌 본성이 아니겠는가? 군자가 없앨 수 없는 선과 불선으로 도를 행한다면 성인과 멀지 않다. 이와 같지만 여기에 이른 사람과 이것을 사용한 사람이 따로 있으니, 그

19) 이 부분은 《周易·繫辭傳》 상의 “一陰一陽之謂道，繼之者善，成之者性。”과 연결시킬 수 있다. 소식은 불과 익혀진 물건과의 관계를 본성 자체가 아니라 본성을 계승해서 현실에서 이은 것이 선이라고 보았다.

20) 소식은 《동과역전》에서 정(情)을 구체적인 행위방식과 그로 인해 생기는 희노애구오욕(喜怒哀懼哀惡慾)으로 풀이하고 있다.

도는 늘 같지 않다. 이는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직접 손을 사용하는 것만 못한 것과 같아서 이유를 모르면서 그러하다. 본성이 이런 경지에 이른 것을 명이라고 한다. 명은 명령하다는 뜻이다. 군주의 명령을 ‘명’이라고 하고, 하늘의 명령도 ‘명’이라고 하며, 본성의 지극한 것도 ‘명’이라고 한다. 본성의 지극한 것은 명이 아니지만 뭐라고 이름 할 수 없어서 명에 잠시 맡겼다. 생사와 화복은 명 아닌 것이 없으니 성인의 지혜가 있더라도 이유를 모르면서 그렇게 된다. 군자에게 도가 하나이면서 둘이 아닌 지경에 이르러 직접 손을 사용하는 것과 같으면 역시 이유를 모르면서 그렇게 된다. 이것이 명에 맡긴 까닭이다. ‘정(情)’은 본성이 움직인 것이니 거슬러 올라가면 명에 이르고, 밑으로 내려가면 ‘정(情)’에 이르니 본성 아닌 것이 없다. 본성과 ‘정(情)’은 선악의 구별이 있지 않고 흩어져 행해지면 ‘정(情)’이라고 할 따름이다. 명과 본성이 하늘과 사람의 구별이 있지 않고 하나가 되어 아(我)가 없으면 명이라고 할 따름이다.²¹⁾

이 글에서 소식은 정은 본성이 움직여 밖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심성수양과 도야는 현실적으로 정에서 수행해야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정이나 정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선악의 형성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맹자가 말한 것처럼 내재적 자연본성과 외재적 명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식은 사람의 자연본성으로부터 인정을 추출하고, 또 이 인정을 본체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본성과 명과 같은 차원으로 올려놓는다. 정감을 본성과 명의 차원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21) 《東坡易傳》 권1, <乾卦>, “君子日修其善以消其不善; 不善者日消, 有不可得而消者焉. 小人日修其不善以消其善; 善者日消, 亦有不可得而消者焉. 夫不可得而消者, 堯舜不能加焉, 桀紂不能亡焉, 是豈非性也哉! 君子之至於是, 用是爲道, 則去聖不遠矣; 雖然有至是者、有用是者, 則其爲道常二, 猶器之用於手不如手之自用, 莫知其所以然而然也. 性至於是, 則謂之命; 命, 令也. 君之令曰命, 天之令曰命, 性之至者亦曰命. 性之至者非命也, 無以名之而寄之命也. 死生禍福, 莫非命者, 雖有聖智, 莫知其所以然而然. 君子之於道, 至於一而不一, 如手之自用, 則亦莫知其所以然而然矣, 此所以寄之命也. 情者, 性之動也, 溯而上至於命, 沿而下至於情, 無非性者, 性之與情, 非有善惡之別也, 方其散而有爲, 則謂之情耳. 命之與性, 非有天人之間也, 至其一而無我, 則謂之命耳.”

4. 情을 근본으로 하는 윤리설

소식의 정감론은 전통적인 본성론에 대한 비판 위에 완성되었다. 소식은 예는 정에서 근원한다고 보았는데,²²⁾ 이는 정감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자연속성으로 본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감은 선악, 시비, 의(義)와 불의(不義) 등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도덕정감(道德情感)과 선악, 시비, 의와 불의 등 도덕적 가치와 관련이 없는 자연정감(自然情感)으로 나뉘는데, 소식의 정감은 자연정감이라고 할 수 있다.²³⁾ 본 장에서는 소식의 정을 정감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의 인생관에서 정감은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정치이상이든 인륜도덕이든 모두 인정에 뿌리를 두어야지 인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마르면 반드시 마시고, 배고프면 반드시 먹게 된다. 먹는 것은 반드시 옳으로 해야 하고 마시는 것은 반드시 물로써 해야 한다. 이는 어리석은 부부도 모두 아는 것이고, 지혜로운 성인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성인은 이것이 없으면 성인이 될 수 없고 소인은 이것이 없으면 악을 행할 수 없다.²⁴⁾

사람의 자연적인 욕구는 성인이나 소인이 모두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사람의 본질이 되며,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본성이라고 보았다. 소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성(誠)이라고 하여 본성을 성(誠)이라고 보고, 이 성으로부터 발현된 것이 정(情)이라고 보았다.

22) 《蘇軾文集》 권2, 《中庸論中》, “夫禮之初, 始諸人情, 因其所安者, 而爲之節文, 凡人情之所安而有節者, 舉皆禮也.” 《蘇軾文集》 권2, 《禮以養人爲本論》, “夫聖人之道, 自本而觀之, 則皆出於人情.”

23) 정상봉, <儒家的 情感倫理學> (《中國學報》 제56집, 2007) 470-471쪽 참고.

24) 《蘇軾文集》 권10, <張厚之忠甫字說>, “渴必飲, 饑必食, 食必五穀, 飲必水, 此夫婦之愚所共知, 而聖人之智所不能易也. 聖人無是, 無由以爲聖; 而小人無是, 無由以爲惡.”

요와 순도 더할 수 없고 결과 주도 없앨 수 없는 것, 이것을 성(誠)이라고 한다.²⁵⁾

뜻이 향하는 바를 드러내는 것을 심(心)이라고 하고, 진실로 그러함(誠)을 드러내는 것을 정(情)이라고 한다.²⁶⁾

정(情)은 진실로 그러한 것(誠)이다. 구름이 용을 따르고 바람이 호랑이를 따르듯 아무런 까닭 없이 따르는 것이니 어찌 혹 거짓됨이 있을 수 있겠는가?²⁷⁾

위에 인용된 글에서 소식은 요순도 더해줄 수 없고 결주도 없앨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마음속에 진실된 것, 인위적이냐 의도를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것을 ‘성(誠)’이라고 보았다. 이런 ‘진실함(誠)’의 특징은 본성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다. 소식은 《동파역전》 <건(乾)>괘의 해석에서도 본성을 정의하면서 요순도 더해줄 수 없고 결주도 없앨 수 없는 것을 본성이라고 정의했다.²⁸⁾ 따라서 목마르면 마시고 배고프면 먹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과 욕구가 곧 진실함(誠)이며 본성(性)인 것이다. 원래 성(誠)은 ‘참으로’, ‘진실되게’ 등 행위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였던 것인데, 유교에서 인간 행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추상 명사화시킨 용어다. 북송오자의 한 사람인 주돈이(周敦頤)는 지극히 참되어 허망함이 없는 것(至實而無妄)을 성(誠)이라 하면서, 이것은 하늘이 부여한 것을 만물이 품수한 바른 이치(正理)라고 하였으며²⁹⁾, 또 주희는 진실되고 망령됨이 없는 것(眞實無妄)이 성(誠)이며, 이것은 천리의 본연이라 하였다.³⁰⁾ 하지만 인간은 선악이 함께 있는 기질지성(氣質之性)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천도로서의 성(誠)이 본체론적 실체 개념이라면 성실해지려는 인간의 노력은 수양론적 당위 개념이라 하겠다. 이에 반해 성(誠)을 정

25) 《東坡易傳》 권1, <乾卦>, “堯、舜之所不能加, 桀、紂之所不能亡, 是謂誠”

26) 《東坡易傳》 권1, <復卦>, “見其意之所向謂之心, 見其誠然謂之情”

27) 《東坡易傳》 권1, <咸卦>, “情者, 其誠然也. 雲從龍, 風從虎, 無故而相從者, 豈容有僞哉!”

28) 《東坡易傳》 권1, <乾卦>, “堯舜不能加焉, 桀紂不能亡焉, 是豈非性也哉!”

29) 《太極通書》, “誠者, 至實而無妄之謂, 天所賦, 物所受之正理也.”

30) 중용·장구 20장에 “誠者眞實無妄之謂, 天理之本然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情)으로 해석하는 소식의 견해는 이전의 유학자들과 다른 성격을 띠며, 소식 동시기나 이후의 정주철학과도 구별되는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추상적인 천리 개념을 인간의 자연스런 정감으로부터 비롯되는 개념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자연스런 본능과 욕구를 긍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띠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런 정감과 본성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까?

정은 본성이 움직인 것이다.³¹⁾

본성에게 정은 선악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성이 흩어져서 행함이 있으면 정이라고 할 따름이다.³²⁾

본성은 처음에는 선악의 구별이 없다가,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날 때 선악의 구별이 생긴다. 소식은 여기서 선악의 구별이 후천적이고 경험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시의성과 조건에 따라 선악이 갈리므로, 선악이 필연적 선함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라 경험적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곧 정으로 드러났을 때 선악의 구별이 생긴다는 것이다. 본성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면 정이 되고 본성에서 거슬러 추상화되면 명이 되므로 본성은 곧 구체적인 드러난 실정과 감정을 귀납한 것이 된다. 현실의 구체적인 무수한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귀납하여 본성을 개괄한다는 것이다. 선함적 도덕적 본성으로부터 정이 발현되는 정주이학의 윤리설과 비교하면,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우려난 자연스런 정감을 윤리의 실천근거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옛날의 군자는 본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근심하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본성을 말했다. 무릇 볼 수 있는 것으로 본성을 말했지만 모두 본성과 유사한 것이다.³³⁾

31) 《東坡易傳》 권1, <乾卦>, “情者, 性之動也.”

32) 《東坡易傳》 권1, <乾卦>, “性之於情, 非有善惡之別也, 方其散而有爲, 則謂之情耳.”

33) 《東坡易傳》 권1, <乾卦>, “古之君子, 患性之難見也, 故以可見者言性. 夫以可見者言性, 皆性之似也.”

소식은 본성과 정의 관계를 풀이하면서 본성을 정으로 해석한 다음에, 본성은 볼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으며, 무단히 변하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 규정하고, 이어서 본성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정이라고 하여 정주이학자처럼 본성과 정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임을 말하고 있다. 이런 설명은 <적벽부>의 물과 달의 비유와 연결시킬 수 있다.

객은 물과 달을 아십니까? 이같이 흘러가지만 떠나가 버린 적은 없으며 저와 같이 차고 기울지만 끝내 떨어지거나 더해진 적은 없습니다. 그 변한다는 점에서 보면 천지는 한순간이라도 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점에서 보면 모든 사물과 우리는 모두 다한 적이 없으니 또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게다가 천지 사이에 모든 사물은 각각 주인이 있으니 내 소유가 아니면 한 터럭이라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 사이의 맑은 달만이 귀가 얻으면 소리가 되고 눈이 만나면 색이 되어, 취해도 금하지 않고 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물주의 무궁무진한 보물이며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길 만한 것입니다.

여기서 쉽 없이 흘러가고 변화하는 달은 정(情)이며 한 번도 흘러가거나 변화한 적이 없는 물이나 달은 본성이다. 여기서 불변의 물과 달은 정주이학에서 말하는 초월적 본체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수많은 변화가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이룬 달을 말한다. 따라서 초월적인 본체를 상정하여 연역되어 내려오는 달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적인 사실(情)이 모여 이룬 달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식에게 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성을 이루는 정, 곧 정감이 중요하므로 눈앞에 펼쳐진 청풍명월과 같은 정(情)을 중시하여 전체로서의 본성을 찾아나갈 것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을 중시하는 측면은 《주역》의 해석방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육십사괘, 삼백팔십사효는 모두 말단(효-정감)에 근거해서 거꾸로 근본(괘-본성)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역》은 거꾸로 헤아리는 것이다.”³⁴⁾

34) 《東坡易傳》 권9, <說卦傳>, “六十四卦, 三百八十四爻, 皆據其末而反求其本者也, 故‘易, 逆數也.’”

《주역》의 괘효를 설명하는 방식은 괘의에 바탕으로 하여 효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효를 바탕으로 하여 괘의 뜻을 종합해간다고 보는 것이다. 이 말은 본성 자체는 볼 수 없으며, 볼 수 있는 것은 본성의 효과, 즉 정(情)이듯이 현실생활의 구체적인 행위방식을 면밀하게 고찰하는 것을 통해 본성을 귀납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식에게 있어서 절대불변의 도나 선한 본성을 설정해 놓고 구체적인 사실로 실행해가는 연역적 방법은 무의미하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현실(情)인 흐르는 물과 쉼 없이 변하는 달을 통해 본성과 도를 귀납해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식에게 진실한 인간의 감정인 성(誠)은 본성을 이루는 중요한 관건이며, 또 유학의 중요한 개념인 본성(性)과 성(誠)을 정(情)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 당시 전통적인 유학과 동시대 정주이학자들과는 다른 정감론적 윤리설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본성이 정감이라는 전제에서 성정(性情)은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소식은 “천하 사람들이 똑 같이 편안하게 여기는 것”³⁵⁾을 선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선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정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추상적이며 선험적인 리(理)로 선을 정의하는 것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이다. 정주이학자들의 선이 보편을 지향하는 ‘리일(理一)’의 측면이라면, 소식의 선은 구체성을 지향하는 ‘분수(分殊)’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소식이 생각하는 선은 정(정감)을 근본으로 한다. 이 선은 정으로부터 근원하며 정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지 선악으로 성정을 규제하거나 판정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점이 바로 근본적으로 정주이학자들과 다른 점이다. 정주이학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의 선악은 ‘리(理)’가 결정하고, 리에 부합해야 선이 되고 리에 어긋나면 악이 된다. 그리고 이 ‘리(理)’는 경험적 정감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 도덕법칙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소식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본성의 효과를 선이라고 보았다. 이 말을 유추해가면 악도 본성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소식이 볼 때,

35) 《蘇軾文集》 권4, <揚雄論>, “夫太古之初, 本非有善惡之論, 唯天下之所同安者, 聖人指以爲善, 而一人之所獨樂者, 則名以爲惡.”

선악 등의 본성의 효과를 본성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불에 익힌 음식물을 불과 동일하게 보는 것과 같다. 선악은 단지 성정의 발현에 불과하며, 성인은 성정을 선으로 발현하고 소인은 성정을 악으로 발현한다고 보았다. 본성과 정감을 사람들의 자연스런 본성으로 끌고 온 후, 이 자연본성을 인성의 본체로 보았다. 이 결과 덕행과 인성을 동일시하는 것을 피하여 도덕적 권위를 없애고 개인의 성정을 중시하는 정감론적 윤리설의 특징을 확립했던 것이다.

성인은 이것이 없으면 성인이 될 수 없고, 소인은 이것이 없으면 악을 행할 수 없다. 성인은 희노애구애오욕 일곱 가지로 다스려 선으로 가고, 소인은 이 일곱 가지로 다스려 악으로 간다. 이로부터 보면 선악은 본성이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성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³⁶⁾

성인은 일곱 가지 감정을 잘 다스려서 선으로 가고, 소인은 일곱 가지 감정을 과하거나 못 미치게 다스려 악한 쪽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볼 때 선악은 본성이 밖으로 발현되는(之) 것이지, 본래부터 가지고 타고나는(有) 것이 아니다. 본성에 선악이 선험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이 나오면서 경험적 조건과 시의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선한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악한 쪽으로도 갈 수 있다. 본성이 정으로 표현되고 나서 후천적 경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본성에 선악이 내재해 있다는 정주이학의 선험론이나 의무론적 윤리설과 구별되는 귀납적 경험적 관점에 따른 정감론이라고 할 수 있다.

소식은 예와 정의 관계를 정의할 때도 인정의 각도에서 예의 합리성을 부각시킨다. 일반적으로 예는 '의식화'된 존재형식이며 개인의 자유로운 정감을 속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공자는 예악문화가 정감적 원칙을 상실한 시대에 정감에 기초한 인을 예의 기초로 규정지음으로써 예가 형식화 되는 경향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는 반대로 예는 일반적으로 정감을

36) 《蘇軾文集》 권4, <揚雄論>, “聖人無是, 無由以爲聖; 而小人無是, 無由以爲惡. 聖人以其喜怒哀懼愛惡欲七者禦之, 而之乎善; 小人以是七者禦之, 而之乎惡. 由此觀之, 則夫善惡者, 性之所能之, 而非性之所能有也.”

속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주이학자들에게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멸한다(存天理, 滅人慾)’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소식은 이와 달리 추상적인 천리의 측면에서 인정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에서 출발하여 예의 존재 근거를 찾는다. 따라서 정주이학자와 달리 선을 외적으로 규제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은 소식이 천리를 추구해 가는 방법으로써의 경(敬)을 중시하지 않고 참된 정감인 성(誠)을 중시하는 측면으로도 이어진다.³⁷⁾

무릇 경으로 허물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이 있는 것이다. 사물이 서로 의심하지 않으면 또한 경으로 포섭하지 않는다.³⁸⁾

소식은 경을 인간의 참된 정감이 아니라 의심이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참된 정감의 상태인 성(誠)에서는 어떤 목적의식(攝)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것은 경공부(敬工夫)를 자기완성에 이르는 최상의 방법으로 보는 성리학파와 다른 수양론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소식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정감으로부터 본성을 귀납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선의 실천의 경지인 명(命)을 그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정감이 사람의 자연스런 욕구라는 측면에서는 물질적이지만, 경험적 사실과 시의성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경지인 명(命)에 이른다는 측면에서는 도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천리를 미리 상정하고 그에 맞는 도덕적 행위를 규제하는 정주이학과는 다른 윤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7) 원래 정이는 경(敬)은 사특함을 막는 도이며, 주일무적(主一無敵)이라고 했다. 따라서 경은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상태로 유지하는 수양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이가 말하는 주일은 마음이 천리와 합치되는 것이며 밖의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을 중심으로 해서 인욕(人欲)의 싹을 막고 천리(天理)의 정상을 확충하여, 도심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은 학문과 생활전반에 걸쳐 자아를 조절시키면서, 천부(天賦)의 선(善)으로 자아를 회복시키는 자율적 정신이고, 또한 당위적 정신이다

38) 《東坡易傳》 권1, <需卦>, “夫敬以求免, 猶有疑也. 物之不相疑者, 亦不以敬相攝矣.”

5. 善을 향한 人情의 실천

윤리적 실천 문제인 선은 선악과 시비의 가치판단과 실천의 문제이다. 정주 이학자들은 천도와 선의 문제를 연결시키는데 있어 맹자의 성선론을 받아들여 본성 자체를 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하늘이 명한 본성이 선하다는 전제 안에서만 선행이 가능하고 진실된 행위가 보장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본성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선의 실천은 억지로 행하는 '위선(僞)'이 된다. 따라서 예교(禮敎)도 거짓된 전제 위에서 쌓아올린 모래성이 되고 만다고 보았다.³⁹⁾ 이에 반해 소식은 선에 내포된 의미는 선협적인 개념으로부터 연역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며 형이하의 구체적 표준으로부터 검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태고의 처음에는 본래 선악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 오직 천하 사람들이 다 같이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성인은 가리켜 선이라고 하였으며, 한 사람이 홀로 즐기는 것을 이름 붙여 악이라고 하였다. 천하 사람들이 본래 그 즐거운 바에 나가서 행하려고 하지만, 성인은 오직 한 사람의 즐거움이 천하의 편안함을 이길 수 없다고 여긴 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때문에 선악에 관한 논의가 있게 되었다.⁴⁰⁾

이 글에서 소식은 선악에 대해 몇 가지 규정을 내린다. 우선 선은 성인이 제정한 것이며, 천하 사람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천하 사람들이 정감적으로 '편안하게(安)' 여기는 것이 선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선의 권위는 성인이 정하며, 선은 천하 사람들의 보편성을 띄어야 하며, 선

39) 《雜學辨》, “如此, 則是人生無故有此大僞之本, 聖人又爲之計度隱諱, 僞立名字以彌縫之, 此何理哉!”

40) 《蘇軾文集》 권4, <揚雄論>, “夫太古之初, 本非有善惡之論, 唯天下之所同安者, 聖人指以爲善, 而一人之所獨樂者, 則名以爲惡. 天下之人, 固將卽其所樂而行之, 孰知夫聖人唯其一人之獨樂不能勝天下之所同安, 是以有善惡之論.”

은 정감과 경험적인 차원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특징에 따르면 소식은 사람들의 정감에 기초한 것이 선이며, 선은 정감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지 본성에 내재된 선악으로 성정을 판단하고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일반 사람들의 정감의 측면에서 선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으로 추상적이고 선형적인 '리(理)'에 따라 선을 정의하는 정주이학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정주이학에 따르면 선악은 리가 결정하는데, 리에 부합하면 선이 되고 리에 위배되면 악이 된다. 그리고 이 리(理)는 경험적인 정감으로 규정할 수 없는 선형적인 도덕법칙으로 자리매김하여 사람들의 자연스런 정감을 속박하는 폐단을 가져왔다. 소식은 리에 의해 규정된 선이 오히려 사람들의 선행을 속박한다고 보고 정감에서 우러난 자연스런 선행을 실행할 것을 유도한다.

예가 만들어진 시초는 인정에서 시작하여 인정이 편안히 여기는 것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다. 무릇 인정이 편안히 여기고 절도가 있는 것은 모두 예이니 예에는 정해진 의견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예는 인정이 편안히 여기지 않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또한 정해진 의견이 없었던 적도 없다. 정해진 의견이 없는 것을 잡아서 정해진 의견으로 삼는다면 길 가는 사람들도 모두 예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소식의 시대에 선의 실천은 유교적 예교에 맞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의 존재근거를 천리(天理)에서 찾는 것이 정주이학자들의 공통된 논의였다면, 소식은 그 근거를 인정에서 찾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주이학은 천리와 인정을 대립적으로 보고 인정을 멸함으로 예를 구현했다. 소식은 이와 달리 추상적인 천리에서 인정을 보지 않고, 반대로 인정에서 출발하여 예의 존재 근거를 찾는다. 따라서 정주이학자처럼 선을 선형적 외적으로 규제하는 타율적 도덕이 아니라 본성에서 우러난 자연적 정감을 경험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자율적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정

41) 《蘇軾文集》 권2, <禮以養人爲本>, “夫禮之初, 始諸人情, 因其所安者, 而爲之節文, 凡人情之所安而有節者, 舉皆禮也, 則是禮未始有定論也. 然而不可以出於人情之所不安, 則亦未始無定論也. 執其無定以爲定論, 則途之人皆可以爲禮.”

이나 주희가 ‘경(敬)’을 중시한 것에 비해 성을 중시하는 측면으로 이어진다.

예기에 “진실함에서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 하고, 밝음에서 진실해지는 것을 교라고 한다. 진실하면 밝아지고 밝으면 진실해진다.”라고 하였다. 무릇 진실함이란 무엇인가? 즐기는 것을 말한다. 즐기면 스스로 믿기 때문에 진실함이라고 한다. 밝음이란 무엇인가? 아는 것을 말한다. 알면 도달하기 때문에 명이라 한다. 오직 성인만이 아는 것이 아직 이르기 전에 즐기는 것이 먼저 들어온다. 먼저 들어온 것이 주인이 되어 그 나머지를 기다리면 이것이 즐기는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인은 즐기는 것이 아직 이르기 전에 아는 것이 먼저 들어온다. 먼저 들어온 것이 주인이 되어 그 나머지를 기다리면 이것이 아는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으나, 알면 행하지 않은 적이 없다. 아는 것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더라도 능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공자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 아는 것과 즐기는 것은 현인과 성인이 구별되는 기준이다. 좋아하는 것은 현인이 성실함을 구하는 방법이다. 군자의 배움은 처음을 신중하게 한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것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많으나 능히 즐길 수 없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 사람의 호오는 색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 만한 것이 없으니,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선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을 악취를 싫어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성인의 성실함이다. 그러므로 “진실함에서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 한다”고 하는 것이다.⁴²⁾

일반적으로 정주이학은 예의 실천에 있어 사람들에게 ‘경(敬)’의 수양을 중시하는 동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의 경지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경’과 ‘자유’의 중시는 기본적으로 모순대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예를 실행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소식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경’과 ‘자유’, ‘천리’와

42) 《蘇軾文集》 권2, <中庸論上>, “《記》曰自誠明謂之性, 自明誠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 夫誠者, 何也? 樂之謂也. 樂之則自信, 故曰誠. 夫明者, 何也? 知之之謂也. 知之則達, 故曰明. 夫惟聖人, 知之者未至, 而樂之者先入, 先入者為主, 而待其餘, 則是樂之者為主也. 若夫賢人, 樂之者未至, 而知之者先入, 先入者為主, 而待其餘, 則是知之者為主也. 樂之者為主, 是故有所不知, 知之未嘗不行. 知之者為主, 是故雖無所不知, 而有所不能行. 子曰: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知之者與樂之者, 是賢人、聖人之辨也. 好之者, 是賢人之所由以求誠者也. 君子之爲學, 慎乎其始. 何則? 其所先入者, 重也. 知之多而未能樂焉, 則是不如不知之愈也. 人之好惡, 莫如好色而惡臭, 是人之性也. 好善如好色, 惡惡如惡臭, 是聖人之誠也. 故曰自誠明謂之性”

‘인정’이라는 이항대립적 관계를 벗어나서 천리, 즉 예를 인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곧 예는 인정으로부터 비롯된 경험적 형식이고 인정은 예의 본체가 되어 예와 인정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소식은 진실함(誠)을 즐기는 것이라 하고, 성인과 현인의 차이를 즐기는 것과 아는 것이라 규정한다. 여기서 소식이 진실함을 언급한 것은 정주이 학자와 같은 사람들이 천리와 인정을 이항대립적으로 보고 예를 인식론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예를 인식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현인들은 먼저 알고 난 다음 실천한다. 따라서 인식의 대상인 예와 인식의 주체인 나를 상정하기 때문에 예는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게 되어 구체적인 활동으로 실현할 수가 없다. 이에 반해 소식은 성인의 도는 인식의 행위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즐긴다. 이 즐긴다는 행위는 인식 이전에 존재적인 체험을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식대상과 인식주체는 하나가 되어 알면 바로 행하게 된다. 곧 즐거움의 행위를 통해 지행합일, 곧 윤리적 실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정주이학은 ‘선’을 도(道), 즉 천리(天理)와 성(性)의 차원으로 추상화시켜 ‘본래 선한’ 순수개념 자체로 만들었다. 그래서 선으로 성을 정의하면 본체로부터 작용에 이르도록 일관되게 정의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을지 모르나, 추상적인 선 개념과 구체적인 행위인 ‘선’사이의 논리적 공백을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비해 소식은 선의 의미는 선협적인 개념으로부터 연역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 보아 인정에서 선, 선에서 본성에 이르는 자율적 실천의 가능성을 높여놓았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www.kci.go.kr

소식은 복송을 대표하는 문인이며, 정치가며, 경학자 겸 서화이론가이다.

따라서 그를 문학이나 예술의 방면에서만 연구하는 것은 그의 전체적인 위상을 살피는데 많이 부족하다. 특히 그의 학문적 특징을 살피는 것은 북송의 학문경향이나 시대적 특징을 살피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동파역전》을 중심으로 소식의 윤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윤리란 개인의 도덕수양과 국가사회의 통치를 위해 선을 실행하는 도덕적 체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을 말한다. 소식의 윤리적 이론이 가지는 정감적 특징을 이 논문에서는 규명하려고 하였다. 그의 윤리적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정주이학자들이 자연적 본성을 멸시하고 형이상학적 천리만 중시한데 비해, 소식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 즉 정감을 긍정하고 여기서부터 본성을 정의하고 자유로운 경지(命)까지 간다고 말한다. 이런 정감의 중시는 고원한 천리를 설정하고 수양을 통해 도달할 것을 강요하는 정주이학에 비해 자연스럽고 실천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둘째, 정감은 성인이 정한 것이며, 천하 사람들의 보편적 성격을 띠며 정감적인 특징을 띤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성도 선악도 선험적이지 않고 사회적 실천을 통해 결정되는 후천적 경험적 특징을 가진다. 셋째, 소식에게 선은 선험적인 천리에서 연역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귀납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선의 실천의 측면에서도 예의 근거를 천리가 아닌 구체적인 정감으로부터 찾아내었으므로 보다 자율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 정주이학자들이 '경敬'공부를 중시하는 것에 반해, 자율적 실천을 중시하는 '성誠'의 특징을 낳았다.

소식의 경학은 당시 형성되어 가던 정주이학과 함께 북송시대 사상의 한 축을 이룬다. 따라서 그의 문인 진관이 언급했던 것처럼 소식은 문학보다 '성명자득(性命自得)'으로 대변되는 경학적 특징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문학적 예술적 특징을 살피기에 앞서 학문 내적인 의미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선미眞善美를 함께 아우르는 이상을 가졌던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지식인들에게 있어 문학과 예술 분야(美)가 진리(道)구현이나 선(善)의 실천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소식을 포함한 문인의 사상적 측면은 간과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소식의 진면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다는 의도 하에 소식의 윤리적 측면을 《동파역전》이라는 경학저술에서 살펴 보았다.

< 參考文獻 >

- 蘇軾 著, 龍吟 注評, 《東坡易傳》, 長春: 吉林文化出版社, 2002.
- 余敦康, 《中國: 現代性與傳統論叢 內聖外王的貫通 — 北宋易學的現代闡釋》, 學林出版社, 1997.
- 冷成金, 《文學與文化的張力》, <從《東坡易傳》看蘇軾的情本論思想>,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2004년.
- 王水照·朱剛, 《蘇軾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04.
- 劉禕, 《蘇軾倫理思想研究》, 湖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 龍吟 點評, 《東坡易傳》,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2.
- 성상구, 《동파역전 - 소동파의 주역풀이》, 청계출판사, 2004년.
- 이원석, 《북송대(北宋代) 인성론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 徐建芳, 《蘇軾與周易》,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 范立舟, <<東坡易傳>與蘇軾的哲學思想>, 《社會科學輯刊》 184期, 2009.
- 楊遇青, <志气如神与以神行智論 — 《東坡易傳》中“神”的觀念>, 《周易研究》 78期, 2006.
- 陸慶祥, <蘇軾情本論哲學論>, 《樂山師範學院學報》 26卷, 2011.
- 謝建忠, <蘇軾《東坡易傳》考論>, 《文學遺產》 6期, 2000.
- 金生楊, <也論《東坡易傳》的作者和繫年>, 《文學遺產》 1期, 2003.
- 김용수, <과상 《장자주》에 비친 《역전》의 '성성이지이성이성지'>, 《中國哲學》 제8집, 2001.
- 정상봉, <儒家의 情感倫理學>, 《中國學報》 제56집, 2007.
- 류근성, <李澤厚的 情感本體論>, 《감성연구》 제5집, 2012.
- 이종성, <郭象의 '獨化論'에 관한 考察>, 《大同哲學》 제3집, 1999.

< Abstract >

A Study on Sushi's Emotional Ethics of
"Dongpo's Commentary of Book of Change"

Cha, Youngik

Sushi is a writer, politician, and scholar of painting who represents the repatriation. Therefore, studying him only in the literary and artistic fields is not enough to examine his overall status. In particular, looking at his academic inner characteristics is an important requirement to examine the academic trends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time he was sent back to Korea. In this paper, we examined his theory of promotion based on the reversal of news. Ethics refers to the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a moral framework that implements the good for personal moral culture and the governance of the nation's society. In this paper, he tried to identify the emotional qualities of his ethical theory. To summarize his ethical character, first of all, the denizelogs look down on nature and value only metaphysical nature. This kind of affection has a natural and practical meaning compared to the philosophy of human nature, which forces us to achieve a grand order of nature and culture. Second, it is the adult choice, the universal character and personality of the whole nation. Therefore, the nature and good are not transcendental but acquired experience characteristics that are determined through social practice. Third, to the news, the good seems to be derived not from a transcendental, but from a concrete experience of daily life. In addition, in terms of the practice of good, he sought to find the basis of good manners from concrete human feelings, not from a thousand, and had more practical characteristics. It also gave birth to a "Seong(誠)" education which is practice-oriented by sedentary scholars while they value "Sir". It also gave birth to "Seong(誠)" education, a study that emphasizes practice, while Seonglists place great importance on the "Gyeong

(敬)”.

The science of Sushi is characterized by the era of republicanism along with the study of human dignity that was being formed at that time. As his Student Jin-kwan mentione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of Sushi was more important than the literature community at that time. In this respect, it is very important to look at academic inner meaning before examining literary and artistic characteristics. And for intellectuals of East Asian Confucian culture, who had ideals that included ‘the true, the good and the beautiful’, the literature and art fields were closely linked to the realization of truth or practice of virtue. Considering this point, we can not overlook the ideological aspect of writers, including the news. This paper was designed to look at the ideological side of the news in a psychological writing called 《Dongpo’s Commentary of Book of Change》, under the intention of the overall project.

Key words: Dongpo’s Commentary of Book of Change, Emotion, Empirical, Nature, Autonomous.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0. 31	2018. 11. 13	2018. 11. 13	2018. 11. 27	2018. 12. 31